Issue Report

Vol. 2017-지역이슈-1 (2017. 5.)

해외경제연구소

# 유망진출산업 분석시리즈 (1)
# 베트남

Ⅰ. 경제현황 및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계 ····· 1

Ⅱ. 국가개발계획 및 투자환경 ····· 5

Ⅲ. 유망진출산업 ····· 8

1. 전력 인프라 산업 ····· 8

2. 운송 인프라 산업 ····· 15

3. 통신 인프라 산업 ····· 24

Ⅳ.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28

해외경제정보

해외경제연구소 공식 모바일 앱
• 최신 연구자료 실시간 업데이트
•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외경제정보'로 검색

확인 : 팀 장 이혜경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작성 : 조 사 역 조재동 (6255-5716)
jjd8948@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Ⅰ. 경제현황 및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계

## 1. 경제현황

### □ 소비 및 투자증가 등으로 6%대의 경제성장세 지속 추정

○ 베트남은 1986년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중국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6.6%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며 저소득국에서 중소득국으로 도약함.

○ 2016년에는 가뭄, 해양오염으로 인한 농업부문 등 1차 산업 부진으로 성장률이 전년(6.7%) 대비 둔화되어 6.2%를 기록함.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진작, 제조업·건설업의 지속적 성장, 외국인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6%대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 □ 재정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

○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최근 5년간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를 상회하고 있음.

○ 경상수지는 2011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5년에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서비스·소득 수지 악화로 GDP 대비 0.5%로 급감하였으나, 이후 휴대전화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4%대로 회복한 것으로 추정됨.

< 표 1 >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2013 ~ 17년)

| 구 분 | 단위 | 2013 | 2014 | 2015 | 2016e | 2017f |
|---|---|---|---|---|---|---|
| 경 제 성 장 률 | % | 5.4 | 6.0 | 6.7 | 6.2 | 6.5 |
| 명 목 G D P | 억 달러 | 1,704 | 1,858 | 1,913 | 2,013 | 2,158 |
| 1 인 당 G D P | 달러 | 1,900 | 2,047 | 2,087 | 2,173 | 2,306 |
| 소비자물가상승률 | % | 6.6 | 4.1 | 0.6 | 2.7 | 4.9 |
| 재 정 수 지 / G D P | % | −7.4 | −6.3 | −6.2 | −6.6 | −5.7 |
| 경 상 수 지 / G D P | % | 4.5 | 5.1 | 0.5 | 4.7 | 4.1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4.

## □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최근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추진

○ 산업화에 따라 농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7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GDP의 1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표 2 > 베트남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
| 농 업 | 19.2 | 18.0 | 17.7 | 17.0 | 16.3 |
| 제 조 업 | 13.3 | 13.3 | 13.2 | 13.7 | 14.3 |
| 도 소 매 업 | 9.2 | 9.5 | 9.8 | 10.1 | 10.5 |
| 광 업 | 11.4 | 11.0 | 10.8 | 9.6 | 8.1 |
| 건 설 업 | 5.4 | 5.1 | 5.1 | 5.4 | 5.6 |
| 금 융 업 | 5.3 | 5.4 | 5.3 | 5.5 | 5.5 |

자료: CEIC를 토대로 계산.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최근에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제조업 내에서도 섬유·의류 등 경공업 위주에서, 전기·전자·화학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Deloitte는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에서 낮은 노동비용,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 등에 힘입어 베트남의 순위를 2016년 18위에서 2020년에는 6단계 상승한 12위로 예측함.

##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3위 교역대상국

○ 베트남의 주요 교역대상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으로 4개국과의 교역규모가 전체 교역액의 53.7%를 차지함.

○ 대미 교역에서는 흑자를 지속하는 반면, 중국과 우리나라에게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는 등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표 3 > 베트남의 주요 교역대상국(2015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수 출(A) | 수 입(B) | 교역규모(A+B) | 비중(%) |
|---|---|---|---|---|
| 중 국 | 21,633 | 73,010 | 94,643 | 24.9 |
| 미 국 | 34,539 | 7,779 | 42,318 | 11.1 |
| **한 국** | **8,913** | **30,548** | **39,461** | **10.4** |
| 일 본 | 13,761 | 13,783 | 27,544 | 7.3 |
| 소 계 | 78,846 | 125,120 | 203,966 | 53.7 |
| 총 계 | 164,683 | 214,873 | 379,556 | 10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한-베트남 경제협력 관계

### □ 정치·외교 부문에서 협력 지속 강화

○ 우리나라와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상 방문, 공동성명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꾸준히 격상함으로써 정치·외교·경제 부문에서 우호를 증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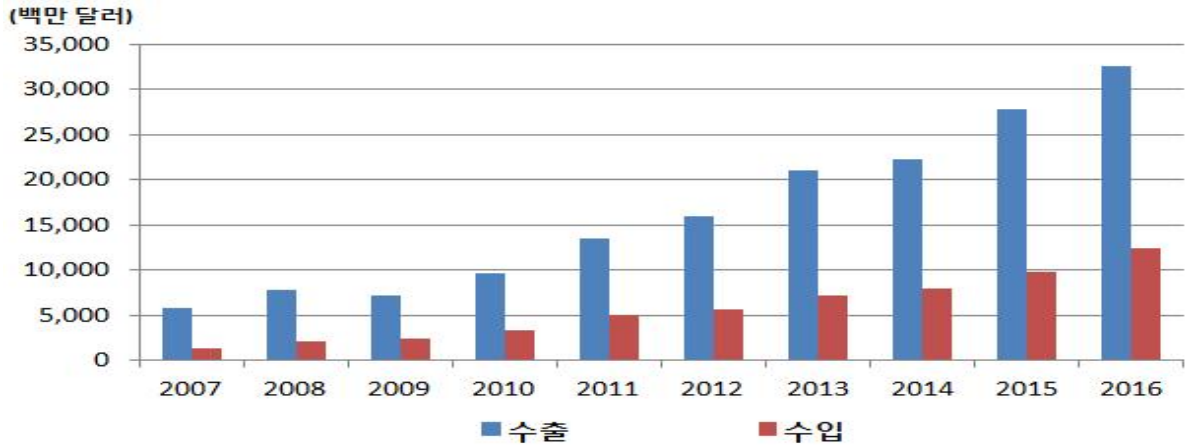
— 2001년 '21세기 포괄적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였으며 2014년 FTA를 최종 타결함.

### □ 한·베트남 수교 이후 교역증가 규모가 연평균 20%를 상회

○ 수교 이후 25년 간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입은 각각 연평균 20%, 25% 증가해, 2016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수출국이자, 제8위 수입국임.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은 제4위 수출국이자, 제2위 수입국임.

— 2016년 기준 주요 수출품은 무선통신기기(15.9%), 반도체(14.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7.7%) 등 전기전자 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무선통신기기(25.2%), 의류(19.6%) 등임.

< 그림 1 > 한-베트남 교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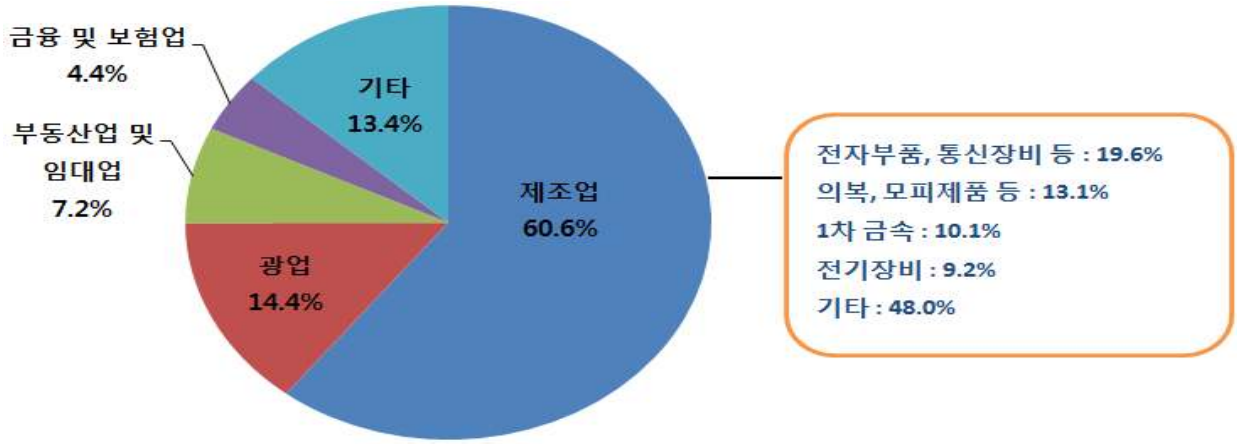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우리나라는 베트남 제1위 투자국

○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FDI는 낮은 인건비 및 법인세 등에 따라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의 활발한 진출에 힘입어 2013년 이후 4년 연속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의 지위를 차지함.

○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 베트남은 미국, 케이만군도, 중국에 이은 제4위 투자대상국(2016년 기준)으로 2016년 말 누계 기준 신규법인 수는 4,738건, 투자금액은 152.7억 달러임.

< 그림 2 > 대 베트남 업종별 투자비중 (2016년 말 누계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Ⅱ. 국가개발계획 및 투자환경

## 1. 주요 국가개발계획

### □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수립

○ 베트남은 10년 주기로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두 차례의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SEDP)을 하위 정책으로 두고 있음.

— 현재는 2011년에 수립한 SEDS 2011-2020 중 두 번째 중기 개발계획인 SEDP 2016-2020 추진 기간에 속해있음.

○ 2011-2020 SEDS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을 3대 전략동력으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1인당 GDP 3,200달러 달성 및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2016년 4월 비준된 2016-2020 SEDP는 SEDS의 두 번째 5개년 개발계획으로 8대 주요 목표*를 수립하고 경제·사회분야 개혁 가속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음.

* ①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성장률 제고, ②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③시민 안전·복지·삶의 질 개선, ④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⑤국가안전 보장, ⑥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⑦국가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⑧국제사회에서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

< 첨부 1: 2011-2020 SEDS 및 2016-2020 SEDP 주요 목표 >

## 2. 투자환경

### □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중위권 수준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7에서 베트남은 190개국 중 82위를 차지함. 인도네시아(91위), 필리핀(99위)보다는 높지만 말레이시아(23위), 태국(46위)에 비해서는 뒤처지는 등 중위권 수준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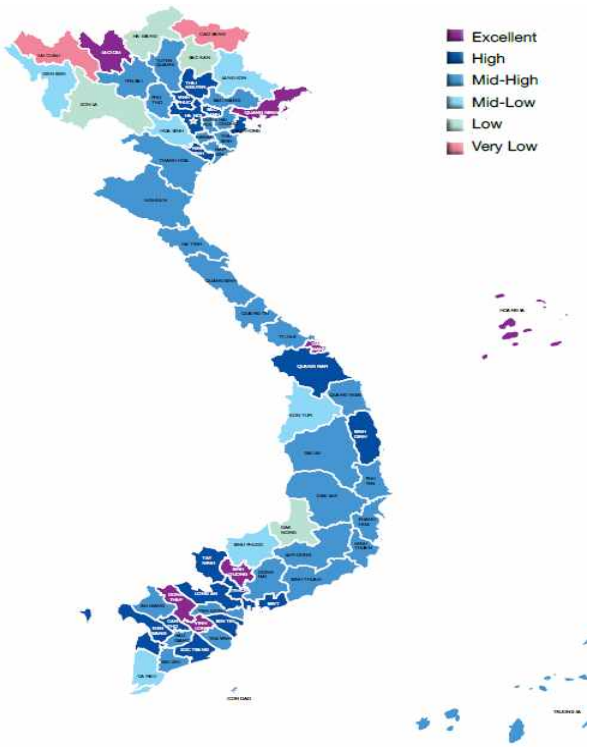
— 세부 항목별로는 건축허가(24위), 자금조달(32위)의 순위가 높은 반면, 사업 개시(121위), 조세납부(167위) 부문이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국무부의 2015 베트남 투자환경보고서(Vietnam Investment Climate Statement)에 따르면 정치·경제 안정성, 높은 시장 개방도, Post-China 로서의 제조업 기지 등이 긍정적 요소로 언급됨. 반면 열악한 인프라, 만연한 부정부패, 부족한 숙련인력 등은 부정적 요소로 지적됨.

○ 2016 베트남 지역경쟁력지수(Provincial Competitive Index, PCI)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다낭,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의 비즈니스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 간 진입비용(Entry Cost), 노동력(Labor Training), 개방성(Proactivity) 측면이 개선된 반면, 투명성(Transparency), 비공식 비용(Infromal Charges),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등 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그림 3 > 베트남 지역별 투자환경




< 표 4 > 지역경쟁력 상위 10개 성·시

| 그룹 | 순위 | 도시 | 점수 |
|---|---|---|---|
| Excellent | 1 | Da Nang | 70.00 |
| | 2 | Quang Ninh | 65.60 |
| | 3 | Dong Thap | 64.96 |
| | 4 | Binh Duong | 63.57 |
| | 5 | Lao Cai | 63.49 |
| | 6 | Vinh Long | 62.76 |
| High | 7 | Thai Nguyen | 61.82 |
| | 8 | HCMC | 61.72 |
| | 9 | Vinh Phuc | 61.52 |
| | 10 | Quang Nam | 61.17 |

자료: The Vietnam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2016.

## □ 외국인 투자 법률 개정으로 투자환경 지속 개선

○ 정부는 2015년 7월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유치 분야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신투자법과 신기업법을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보다 유리한 여건을 제공함.

— 법인 설립 시 외국 투자법인(외국인 지분 51% 이상)은 기업등록증과 투자등록증을 모두 신청해야 하며, 외국인 지분이 51% 미만일 경우 내국법인과 법인설립 절차가 동일함.

— 투자등록증 허가 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법인 인감 등록 절차 등을 간소화함. 또한 투자유치 분야를 5단계로 구분(일반투자, 특별 투자장려, 투자장려, 조건부 투자, 투자금지)하여 각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세분화함.

## □ 특정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선별적 인센티브 제공

○ 베트남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IP), 수출가공공단(EPZ), 경제특구(EZ)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역 투자기업은 법인소득세, 관세, 토지사용료 등 부문에서 우대 세율이 적용됨.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FDI 유입액(등록 자본액, 억 달러): 78.5('12) → 142.7('13) → 156.4('14) → 155.8('15) → 151.8('16)

— 외국인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64.6%), 부동산업(10.0%), 운송·저장업(4.6%), 금융·보험업(3.4%) 등 순서임.

○ 아울러 최근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IT, 부품소재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하이테크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이에 섬유·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투자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 증가하는 공공부채가 인프라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베트남의 공공부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기준 GDP 대비 64.7%로 국회가 설정한 상한치인 65%에 도달함.

* 국가 채무, 국가 채무보증, 지방정부 채무보증 포함

— IMF는 2016년 7월 베트남 정부에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음.

○ 공공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늘리거나 정부지출을 줄여야하나 조세저항이 높아 세수를 증대하기는 쉽지 않음. 한편 정부지출을 낮추어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경우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음.

# Ⅲ. 유망진출산업

## 1. 전력 인프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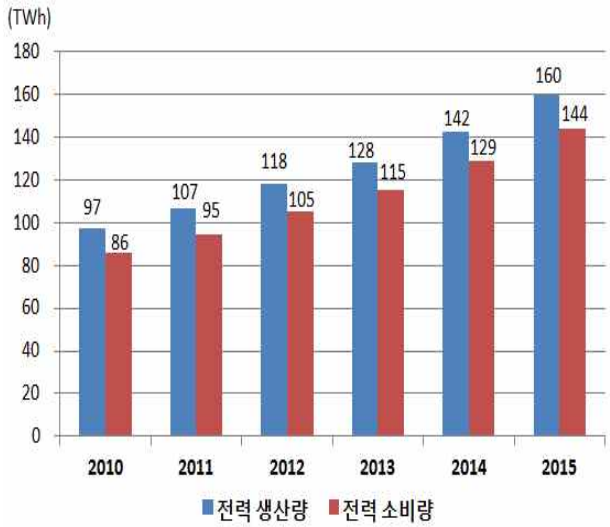
### (1) 산업 현황 및 전망

□ **제조업 성장에 따른 산업용 전력 수요 확대로 전력 생산·소비량 증가세**

○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증가 등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로 지난 10년간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12.1% 증가하였고, 1인당 전력 소비량도 지난 20년간 9배 증가함. 이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역시 대폭 확충됨에 따라 전력 생산량도 2015년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60TWh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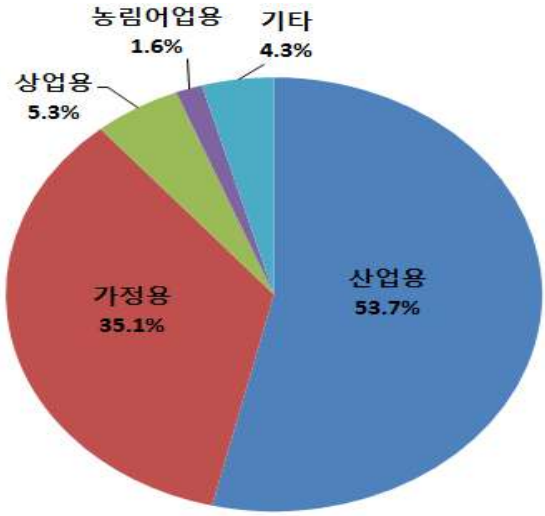
○ 특히 GDP의 40%, 고용의 30%,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전력 소비가 2015년 기준 총전력 소비의 53.7%를 차지하는 등 전력 소비를 주도하고 있음.

< 그림 4 > 베트남 전력생산·소비량 추이




자료: 베트남전력공사(EVN).

< 그림 5 > 소비주체별 전력 소비 구조




주: 2015년 기준
자료: 베트남전력공사(EVN).

## □ 수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화력발전으로 대체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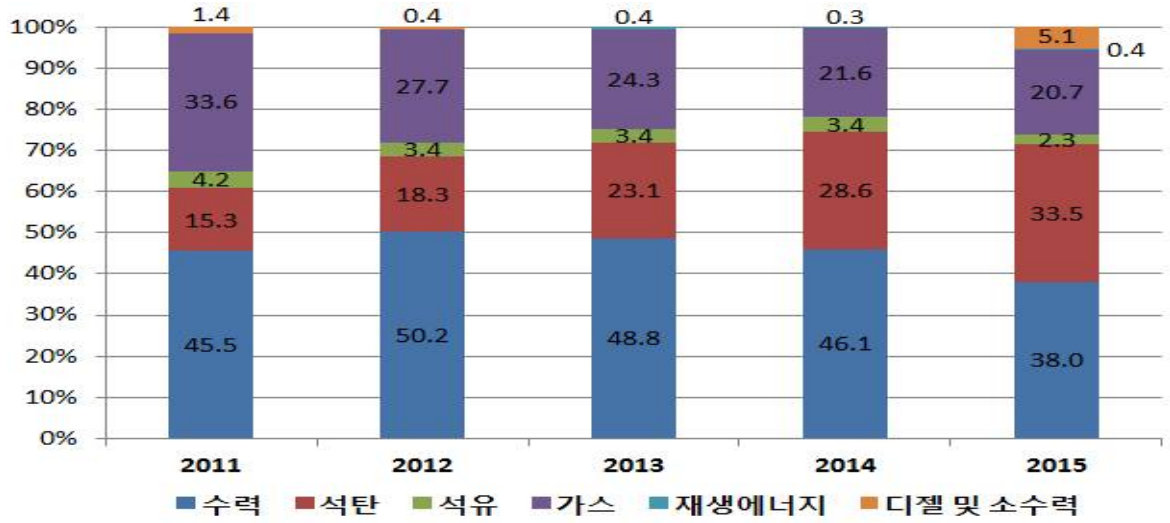
○ 베트남은 산지가 많고 2,200여개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어 수력발전에 유리한 지형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 이에 2012년 수력발전이 총 발전용량의 50.2%로 절반을 상회함.

○ 그러나 최근에는 연료가 저렴한 석탄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대체되고 있어 수력발전의 비중이 2015년 38%로 축소됨.

— 수력발전소는 건설지 인근 주민의 이주 문제, 하천 유역 농업지역의 유실, 자연파괴 등 문제가 건설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한편 긴 해안선, 높은 태양 방사열에 따라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잠재력도 충분하나, 현재까지는 총 발전용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미미한 수준임.

< 그림 6 > 발전원료별 발전용량 비중 추이




자료: 베트남전력공사(EVN).

## □ 전력보급률이 100%에 육박하나, 질적 수준은 미흡해 전력 손실률이 높은 편

○ 전력보급률은 1950년대 50%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인 전력 확충에 힘입어 2015년 기준 도시 99.85%, 농촌 98.88%로 전 지역에 전력 공급이 가능함. 그러나 2016-2017 글로벌경쟁력지수에 의하면 베트남의 전력공급 질적 수준은 85/138위에 불과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또한 산악 위주의 지형적 특성, 송배전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전력 손실률이 2015년 7.94%를 기록함. 최근 5년 간 전력 손실률이 개선* 되고 있으나 주변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전력손실률(%): 9.23('11) → 8.85('12) → 8.87('13) → 8.60('14) → 7.94('15)

※ 국가별 전력 손실률 : 한국(3.6%), 중국(5.5%), 말레이시아(6.1%), 태국(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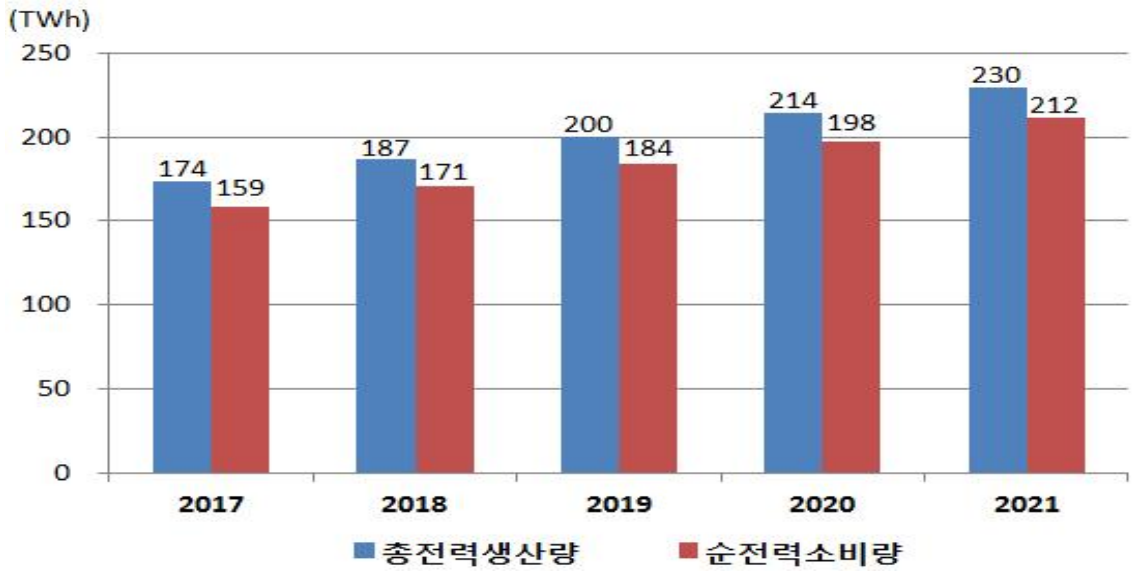
## □ 제7차 전력개발 마스터플랜 개정 및 추진

○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2030년까지 중장기 전력산업 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제7차 전력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으며, 2015~16년에 걸쳐 수정안을 발표함.

○ 수정안에 따르면 전력 수요는 2016~20년 연평균 10.5%, 2021~30년 연평균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요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소 확충으로 전력 공급 역시 연평균 7% 이상 증가할 전망임.

— 베트남전력공사(EVN)에 의하면 2016~20년 중 발전소 가동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는 총 16건(화력 7건, 수력 9건)이며, 총 발전용량은 7,209MW(화력 5,054MW, 수력 2,155MW)임.

< 그림 7 > 베트남 전력생산·소비량 전망 (2017~21년)




자료: BMI, Vietnam Power Report Q1 2017.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아울러 2030년까지 전력부문 예상 투자 규모는 총 1,306.4억 달러(발전 941.2억 달러, 송·배전 365.2억 달러)로 동 부문에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표 5 > 2030년까지 전력부문 예상 투자 규모

단위: 억 달러

| 구 분 | 2014~2020 | 2021~2025 | 2026~2030 | 합 계 |
|---|---|---|---|---|
| 발 전 | 421.0 | 256.3 | 263.9 | 941.2 |
| 송 전 | 67.6 | 55.1 | 76.0 | 198.7 |
| 배 전 | 66.0 | 47.2 | 53.3 | 166.5 |
| 합 계 | 554.6 | 358.6 | 393.2 | 1,306.4 |

자료: ADB, Vietnam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을 토대로 저자 재작성

## □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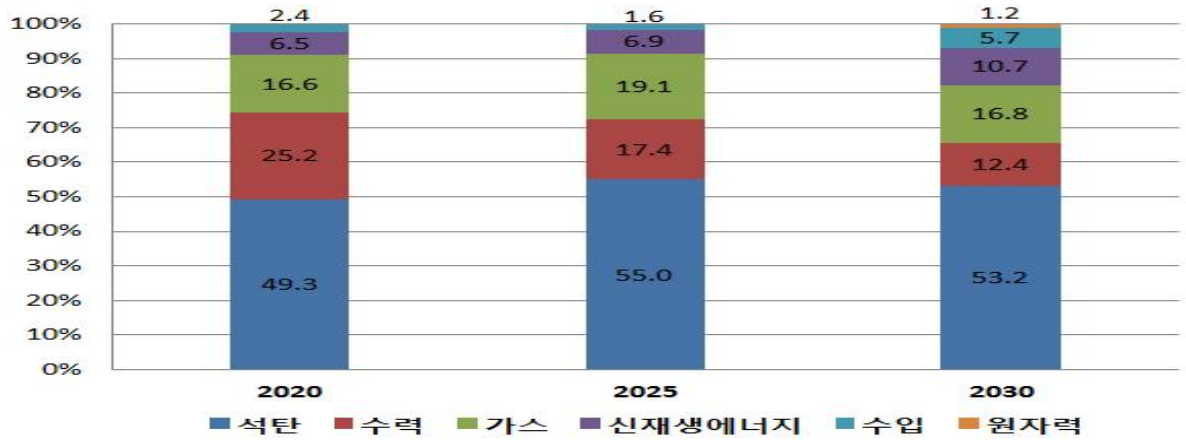
○ 현재 최대 전력원인 수력발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축소되어 2030년에는 12.4%에 불과할 전망임. 반면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발전을 대체하여 2030년 5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국내외에서 저렴한 석탄 공급이 가능한 반면, 국내 가스 공급은 줄어들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실화에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아울러, 2015년 수립한 '2050년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에 의하면 총 전력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20년 31%, 2030년 32.3%, 2050년 44%까지 상승시킬 계획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도 2016~20년 2,060MW, 2021~25년 5,990MW, 2026~30년 15,190MW로 확충할 계획임.

— 다만, 막대한 초기비용 및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수익성 악화, 기술력 부족 등 제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전소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 그림 8 > 발전원료별 전력생산 전망




자료: Decision on the Approval of the Revised National Power Development Plan for the 2011-2020 Period with the Vision to 2030.

< 표 6 > 베트남 전력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es) |
|---|---|
| ○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 기대<br>○ 2025년까지 전력 부문에 총 799억 달러 투자 전망<br>○ 가뭄으로 인해 수력 외 화력발전 등에 대한 수요 확대 전망 | ○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전기요금이 발전 단가를 하회<br>○ 전력체계 미비에 따른 전력 부족<br>○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기후조건에 취약 |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 ○ 국가전력개발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력 생산은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 전망<br>○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동 부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시장개혁 도입 | ○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 대한 높은 리스크<br>○ 열악한 인프라, 부정부패 만연<br>○ 정치적 반대의견 통제로 국민들의 불만 증가 |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 (2) 주요 추진사업

### □ 화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다수 발주 전망

○ **(화력)** 베트남 전력공사(EVN)에 따르면 2020년까지 주요 화력발전 프로젝트는 6건, 총 발전용량은 6,500MW임.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Vinh Tan 4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Quang Trach 1, Tan Phuoc 1&2 등 대규모 화력 발전소 건립이 추진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 1.5억 달러 규모의 Ninh Thuan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서 30여 개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또한, 2016년 9월 24MW 규모의 Phu Lac 1 풍력발전소가 처음으로 가동되었으며, 2020년까지 1,000MW, 2030년까지 6,200MW의 풍력발전 설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포모사 사태*'이후 환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증가, 정부의 환경 규제·감시 강화에 따라 향후 친환경 부문의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16.4월 대만 철강업체 포모사하띤 제철소의 독성물질 무단방류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

< 표 7 > 베트남 주요 발전 프로젝트

| 연도 | 프로젝트 명 | 발전용량(MW) | 공사기간 |
|---|---|---|---|
| 2015 | Dlie-Yang 풍력발전소 | 120 | 2015-2020 |
| 2016 | Vinh Tan 4 화력발전소 확장 | 600 | 2016-2019 |
| | Ninh Thuan 태양광발전소 | 150 | 2016-미정 |
| 2017 | Soc Trang 해상풍력발전소 | 170 | 2017-미정 |
| 2018 | Laly 수력발전소 확장 | 2x180 | 2018-2021 |
| | Hoa Binh 수력발전소 확장 | 2x240 | 2018-2021 |
| | Tri An 수력발전소 확장 | 2x100 | 2018-2021 |
| | O Mon 3 화력발전소 | 750 | 2018-2021 |
| | Bac Ai 양수식 발전소 | 4x300 | 2018-2023/2025 |
| | Quang Trach 1 화력발전소 | 2x600 | 2018-2021/2022 |
| 2019 | O Mon 4 화력발전소 | 750 | 2019-2022 |
| 2020 | Quang Trach 2 화력발전소 | 2x600 | 2020-2023/2024 |
| | Tan Phuoc 1&2 화력발전소 | 2x1,000 | 2020-2023/2024 |

자료: 베트남 전력공사(EVN), BMI.

## (3) 기업 진출현황

###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은 JBIC 및 JICA의 금융지원 하에 Sumitomo, Mitsui, Mitsubishi, Toshiba 등 기업이 건설장비 공급 및 시공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Thai Binh 1, Duyen Hai 5 등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 중국 역시 Oriental Power Group, Dongfeng Electric Group, Shanghai Electric Group 등이 교통은행, 건설은행 등 국유은행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Thang Long, Hai Duong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임.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6년 말 누적 기준 베트남의 에너지 부문에 총 54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27억 달러에 달함.

< 표 8 > 외국기업의 주요 베트남 발전 플랜트 사업

| 프로젝트 명 (규모) | 금액 (백만 달러) | 재원 및 참여기업 | 현황 |
|---|---|---|---|
| Thai Binh 1 화력발전소 (600MW) | 1,270 | Sponsor: Electricity of Vietnam<br>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br>Construction: Marubeni | Under Construction (2014-2018) |
| Duyen Hai 3 화력발전소 확장 (660MW) | 1,082 | Sponsor: Electricity of Vietnam<br>Construction: Sumitomo Corporation, Power Generation Corporation No.1(Vietnam)<br>Equipment: Toshiba | Under Construction (2014-2018) |
| Thang Long 화력발전소 (600MW) | 1,000 | Operator: Thang Long Power Plant JSC(Vietnam)<br>Construction: Wuhan Kaidi Electricity Power Engineering Company(China)<br>Equipment: Alstom SA(France) | Under Construction (2014-2018) |
| Long Phu 1 화력발전소 (1200MW) | 1,595 | Operator: PetroVietnam Power Corporation<br>Equipment: General Electric<br>Construction: Power Machines(Russia) 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Joint Stock Corporation BTG Holding(Slovakia) | Under Construction (2015-2018) |
| Hai Duong 화력발전소 (1200MW) | 1,870 | Operator: JAKS Resources(Malaysia)<br>Construction: China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Group | Under Construction (2016-2020) |
| Vung Ang II 화력발전소 (1200MW) | 2,700 | Sponsor: Vapco Engineers(India)<br>Construction: Mitsubishi Corporation | At Planning Stage |

자료: BMI에서 발췌.

##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우리기업은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17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계획 중임. 특히 두산중공업은 2016년 5.6억 달러 규모의 Vinh Tan 4 화력발전소 확장공사를 수주하여 2019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아울러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한화솔라원, 건화엔지니어링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표 9 > 우리기업의 주요 베트남 발전 플랜트 사업

| 프로젝트 명 (규모) | 금액 (백만 달러) | 재원 및 참여기업 | 현황 |
|---|---|---|---|
| Thai Binh 화력발전소 (1800MW) | 2,930 | Sponsor: Electricity of Vietnam PetroVietnam Power Corporation<br>Operator: Petrovietnam Construction Joint Stock Corporation<br>Construction: **Daelim Industrial Company** Sojitz Corporation<br>Equipment: Toshiba | Under Construction (2011~2018) |
| Vinh Tan 4 화력발전소 확장 (600MW) | 562 | Sponsor: Vietnam Electricity Corporation<br>Construction: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 Contract Awarded |
| Duyen Hai 풍력발전소 (48MW) | 112 | Sponsor: Vietnam Applied Technical Co. Ltd **Kunhwa Engineering and Consultant Company Limited** | Approved |
| Vung Ang III 화력발전소 (1200MW) | 2,400 | Sponsor: **Samsung Construction & Trading** | At planning stage |
| Phuoc Vinh Dong 화력발전소 (1320MW) | 2,700 | Operator: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 At planning stage |
| Thua Thien-Hue 태양광발전소 (200MW) | 200 | Sponsor: **Hanwha Group** | At planning stage |

자료: BMI에서 발췌.

# 2. 운송 인프라 산업

## (1) 산업 현황 및 전망

### □ 육상교통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 산업 지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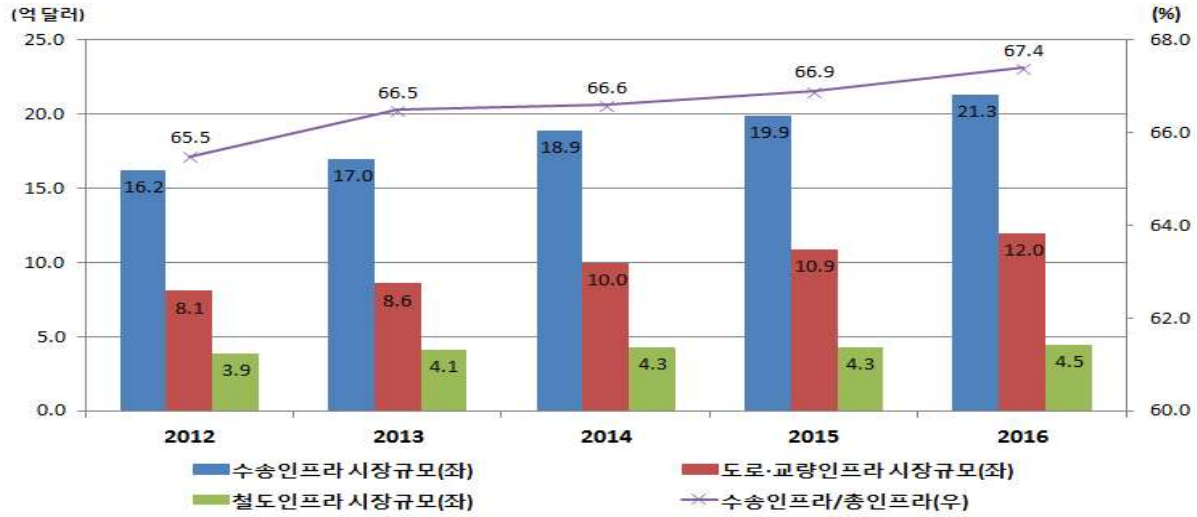
○ 정부는 산업화·도시화 진전에 따른 교통량 및 물류량 증가에 대응해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임. 운송 인프라 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해 2016년 기준 시장 규모 21.3억 달러, 총 인프라에서 67.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한편, 운송 인프라 중에서는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 인프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도로는 베트남 화물 운송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최근 5년간 50% 가까이 급성장함.

< 그림 9 >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장 규모 추이




주: 2014년 이후는 추정치
자료: BMI.

## □ 양적 성장에도 불구, 인프라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미흡

○ 2014년 기준 베트남의 총 도로연장은 212,151km로 2010년(188,744km)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아스팔트 도로는 전체의 51.1%인 108,323km에 불과함. 그 외 도로는 자갈(3.1%), 흙(23.0%), 자갈·흙 혼합(22.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의 40%가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라 차량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로가 왕복 4차선 이하이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함. 이에 오토바이 수가 급속하게 증가해 교통 혼잡 및 정체가 매우 심각함.

— 오토바이 대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8% 증가하여 2015년 기준 46백만 대로 국민 2명당 1대를 보유하고 있음.

○ 철도는 7개의 주요 노선이 있으며 총연장은 2,495km이나 이 중 2,169km가 폭이 1m인 협궤 구간이고 표준궤는 166km에 불과해 대형 화물 운송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차량 노후화, 통신 관제시스템 미비로 인해 철도 인프라가 비효율적이며, 차량 평균속도는 하노이-호치민 구간은 70km/h, 나머지 구간은 40~50km/h에 불과함.

## □ 종합적인 교통·물류 인프라는 주변국과 유사한 수준

○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2016-2017에 따르면 베트남의 종합 인프라 순위는 85/138위로 전년(99위)에 비해 개선됨. 도로(89위), 철도(52위), 항만(77위), 항공(86위) 등 세부 항목은 중하위권 수준임.

○ 2016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는 64/160위를 기록함. 동남아 지역에서는 필리핀보다는 양호하지만 인도·인니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으로,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사료됨.

< 표 10 > 베트남 및 동남아 주요국의 GCI 및 LPI 순위

| 구 분 | | 베트남 | 필리핀 | 인도 | 인도네시아 |
|---|---|---|---|---|---|
| GCI | 종합인프라 | **79** | 95 | 68 | 60 |
| | 도로 | **89** | 106 | 51 | 75 |
| | 철도 | **52** | 89 | 23 | 39 |
| LPI | 종합순위 | **64** | 71 | 38 | 63 |
| | 인프라 | **70** | 82 | 36 | 73 |
| | 물류경쟁력 | **62** | 77 | 32 | 55 |

자료: GCI 2016-2017, LPI 2016

## □ '고속도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베트남 교통부는 2015년 '2020 베트남 고속도로 마스터플랜'을 발표해 2020년까지 도로 인프라 건설에만 약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그러나 이 중 정부 재원은 약 30%에 불과해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임.

○ 아울러 2015년 기준 약 700km에 불과한 고속도로 연장을 2030년까지 6,411km(2020년까지 2,703km, 2020년 이후 3,708km)로 확장해 경제 발전에 필요한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고속도로 노선은 남-동북축 1,814km, 남-서북축 1,269km, 북부지역 1,368km, 중부 및 중부고지대 264km, 남부지역 983km, 하노이 외곽순환 426km, 호치민 외곽순환 287km 등 7개 대노선으로 구분함.

## □ 남북초고속 철도 및 대도시 도시철도 프로젝트 추진

○ 베트남 국무총리는 2015년 8월 총 사업비 91억 달러 규모의 철도 현대화 계획인 '철도수송 종합발전 계획 2020'을 승인함. 동 계획은 2020년까지 하노이-호치민 1,726km 구간에 시속 200km 복선철도를 건설, 2050년까지 시속 350km 남북 초고속 철도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함.

○ 아울러 노후화가 심각한 기존 철도의 개보수 작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 하노이-호치민 구간의 철도 교량교체 사업에 174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

— 2020년까지 총 9개구간, 2030년까지 11개 구간의 개·보수가 완료될 예정으로, 연간 1,600만 명의 승객 수용과 600만 톤의 화물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2030년까지 하노이와 베트남에 각각 8개, 6개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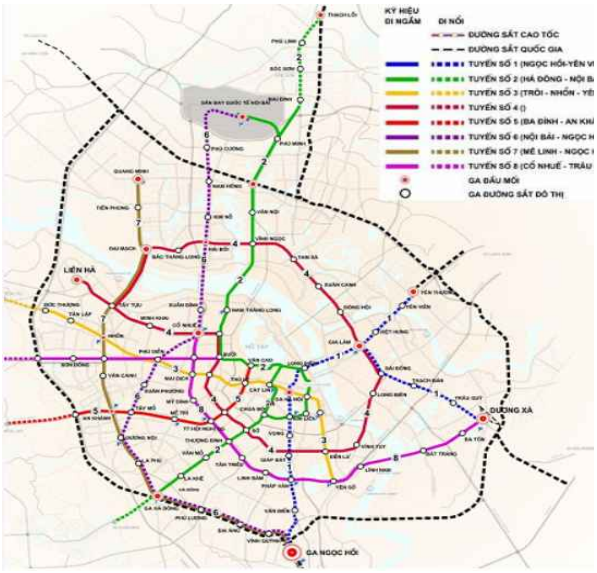
— 하노이 1호선은 2009년 정부 승인을 받았으나, 2014년 뇌물 스캔들이 터지면서 무기한 중단된 상태임. 2A호선은 금년 중 운행이 예상되며, 3호선은 2019년경 완공될 전망임.

— 호치민 1호선은 2012년에 착공하여 2020년 개통이 예상되며, 2호선은 자금 확보는 마쳤으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어 2024년을 전후로 완공될 전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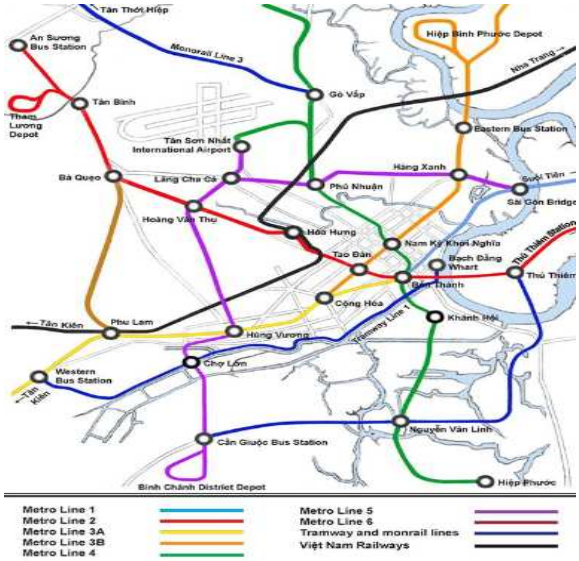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그림 10 > 하노이 도시철도 노선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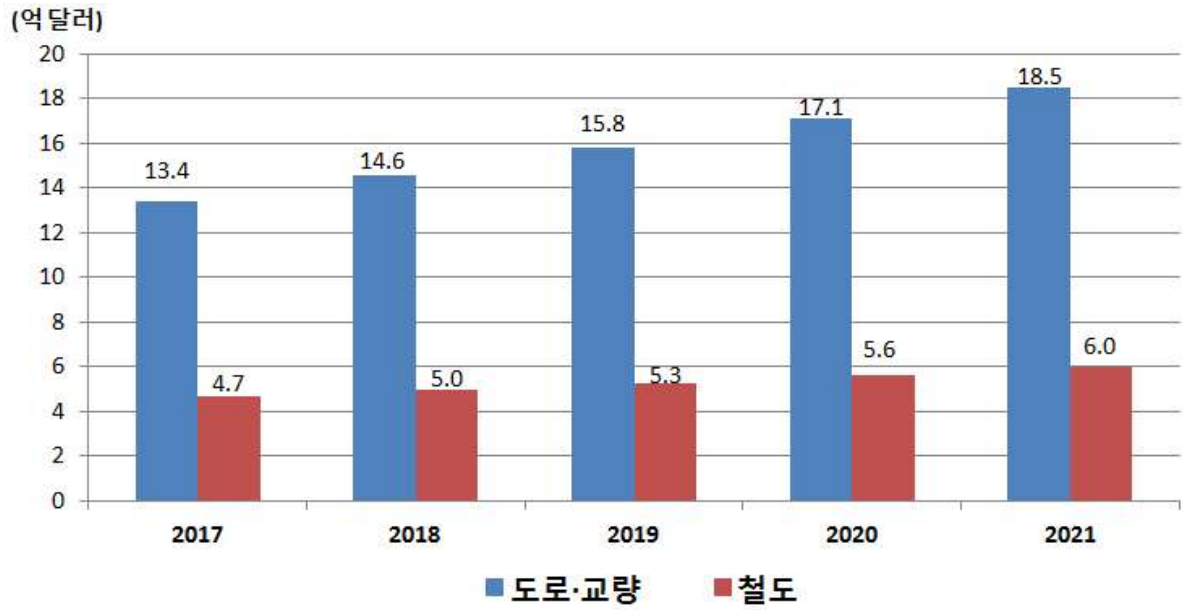

< 그림 11 > 호치민 도시철도 노선도(안)




## □ 교통 인프라 산업 향후 5년간 연평균 8% 성장 전망

○ 2020~30년까지 대규모 교통 인프라 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산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 성장할 전망임. 이에 따라 도로 및 철도 인프라의 시장 규모는 2021년 각각 18.5억 달러, 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2 > 베트남 도로·철도 인프라 규모 전망




자료: BMI.

< 표 11 > 베트남 운송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es) |
|---|---|
| ○ 빠른 경제성장 및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br>○ 도시화 · 산업화, 외국인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 투자 증가 | ○ 높은 자본재 수입 의존도<br>○ 프로젝트 파이낸스(PF)에 대한 높은 리스크 |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 ○ 도시화 진전에 따른 교통인프라 수요 증가<br>○ 민관협력방식(PPP)을 통한 프로젝트 투자 확대<br>○ 개혁 추진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 높은 대미 수출의존도로 인해 미국 경기 변동에 취약<br>○ 재정적자 지속에 따른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 |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 (2) 주요 추진사업

### □ 남북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사업 추진

○ (도로) 2020년까지 도로 인프라 건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하노이-호치민을 잇는 1,800km 남북고속도로, 하노이 외곽순환도로 등 2030년까지 총 48건의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계획하고 있음.

○ (철도) 남북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치민-Nha Trang(366km), 하노이-Vinh(284km) 구간의 신규 건설 및 기존의 하노이-Vinh, Nha Trang-Saigon 구간의 철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아울러 총 12건의 하노이 및 호치민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표 12 > 베트남 주요 추진 도로·철도 프로젝트

| 프로젝트 명 | 금액 (억 달러) | 재원 및 참여기업 | 현황 |
|---|---|---|---|
| Tan Vu-Lach Huyen 고속도로 (15.6km) | 5.6 | Sponsor: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br>Financier: Government of Japan<br>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No. 4, Truong Son Construction Corp, Sumitomo Mitsui Construction | Under Construction (2014-2017) |
| Long An - Dong Nai 고속도로 (57.1km) | 15 | Financier: Asian Development Bank<br>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No. 4, Sumitomo Mitsui Construction | Under Construction (2014-2018) |
| 하노이-호치민 남북고속도로 (1,800km) | 102 | Sponsor: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 | At Planning Stage |
| 하노이 제4번 외곽순환도로 (136km) | 31 | Sponsor: Vietnam Ministry of Transport | At Planning Stage |
| 하노이 제5번 외곽순환도로 (340km) | 40 | Sponsor: Transport Design Incorporated | At Planning Stage |
| 프놈펜-호치민 고속도로 (90km) | 22 | 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At Planning Stage |
| 호치민-Can Tho 철도 연결 (180km) | 36 | Sponsor: Vietnam Souther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br>Construction: EDES Group(United States) | At Planning Stage |
| Bien Hoa-Vung Tau 철도 (120km) | 50 | Financier: Asian Development Bank<br>Operator: Vietnam Railway Corporation | At Planning Stage |
| 호치민-Nha Trang 남북고속철도 (366km) | 560 | Sponsor: Government of Vietnam<br>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br>Operator: Vietnam Railway Corporation | At Planning Stage |
| 하노이-Vinh 남북고속철도 (284km) | 102 | Sponsor: Government of Vietnam<br>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br>Operator: Vietnam Railway Corporation | At Planning Stage |

자료: BMI에서 발췌.

## (3) 기업 진출현황

###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의 Sumitomo Mitsui Construction은 JICA, ADB 등이 지원하는 Tan Vu-Lach Huyen(15.6km), Long An-Dong Nai(57.1km)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진출함.

○ ADB는 2016년 말 누적 기준 대 베트남 교통 인프라 분야에 총 84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54.9억 달러(총 지원액의 3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도로)** GS건설은 Vam Cong 교량,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롯데건설, 한신공영, SK건설도 도로 사업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등 우리 기업은 2012~16년 중 총 23건의 사업에 참여함.

○ **(철도)** 2012년 GS건설이 일본의 Sumitomo, Maeda, Shimizu 등과 함께 호치민 메트로 1호선 사업을 수주함. 대림산업은 2014년 하노이 메트로 3호선을 수주하는 등 우리기업은 최근 5년 간 6건의 철도사업에 참여함.

< 표 13 > 우리기업의 주요 베트남 도로·철도 사업

| 프로젝트 명 | 금액 (백만 달러) | 재원 및 참여기업 | 현황 |
|---|---|---|---|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105.5km) | 2,200 | Sponsor: Vietnam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Finance Investment Joint Stock,<br>Financier: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Citibank<br>Construction:<br>Equipment: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SK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등** | Under Construction (2008~2015) |
| Vam Cong 교량 건설(2.9km) | 271 | Sponsor: **Government of South Korea,** Australia, Vietnam<br>Financier: Asian Development Bank **Export-Import Bank of Korea**<br>Construction: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 Under Construction (2013~2017) |
| 하노이 Thang Long가 교차로 제3 외곽순환도로 | 48 |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oration No. 4, **Hanshin E&C** | Under Construction (2015년 착공) |
| 호치민 메트로 1호선(19.7km) | 2,490 | Sponsor: Vincom Joint Stock Company<br>Financier: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br>Construction: Vinci, Sumitomo Corporation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oration,** Maeda Corporation, Shimizu Corporation 등 | Under Construction (2012~2020) |
| 하노이 메트로 3호선(12.5km) | 1,393 | Sponsor: Government of Vietnam, France<br>Financier: Asian Development Bank European Investment Bank Clean Technology Fund 등<br>Construction: **Daelim Industrial Company** Systra | Under Construction (2011~2018) |

자료: BMI에서 발췌.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3. 통신 인프라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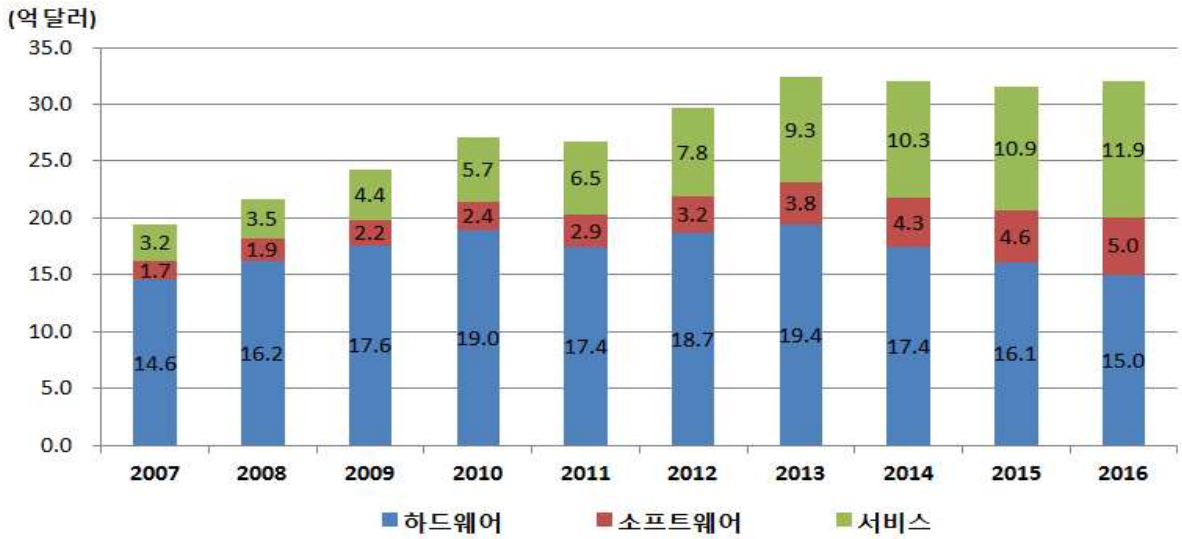
## (1) 산업 현황 및 전망

### □ 산업 규모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장비를 수입에 의존

○ 베트남의 ICT 산업 시장 규모는 국민소득 증가, 기업경영 현대화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함. 2013년 이후 하드웨어 산업의 부진으로 ICT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였으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다만, 현재 베트남의 기술력으로 ICT 산업의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하드웨어의 90%, 소프트웨어의 60%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림 13 > 베트남 ICT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추이>




자료: BMI.

### □ 지역별로 ICT 인프라 차이가 큰 편이며, 주변국 대비 취약

○ 도시화 진전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 그러나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를 제외한 교외·산간 지역의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임.

< 표 14 > 베트남 주요 통신서비스 가입 및 접근 현황

| 구 분 | 단위 | 2014 | 2015 |
|---|---|---|---|
| 유선전화 가입자 수(백명 당) | 명 | 6.0 | 6.3 |
| 이동전화 가입자 수(백명 당) | 명 | 147.1 | 130.6 |
| 컴퓨터 보유 가정 비율 | % | 20.5 | 22.0 |
| 인터넷 접근 가정 비율 | % | 18.6 | 24.1 |
| 인터넷 사용자 비율 | % | 48.3 | 52.7 |
| 유선 인터넷 가입자 수(백명 당) | 명 | 6.5 | 8.1 |
| 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백명 당) | 명 | 31.0 | 39.0 |

자료: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

○ '2016 ICT 개발지수'에서 베트남은 105/175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6/34위를 기록함. 하위 항목별로는 ICT 활용(92위)에 비해 ICT 접근(110위) 및 ICT 기술(114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 미국 IT 기업 Akamai Technologies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베트남의 평균 인터넷 연결 속도는 6.3Mbps로 우리나라(26.3Mbps)의 1/4 수준에 불과함. 10Mbps 이상 광대역 보급률도 11%로 우리나라(78%)에 크게 뒤처짐.

## □ 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정부는 IT를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인식, 2012년 '2020년까지 통신 발전을 위한 국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해 2020년까지의 목표를 수립함.

— 2020년까지 인터넷 보급률 70% 이상, 이동통신 보급률은 95%, ICT 산업의 GDP 기여율을 8~10%, ICT 산업 종사자 100만 명 육성 등을 목표로 함.

○ 또한 2014년 8월 발표한 '2025년을 목표로 한 2020년까지의 IT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IT 산업단지를 현재 7곳에서 2020년까지 19곳으로 늘리고 콘텐츠 서비스, 데이터센터, 부속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분야를 육성할 계획임.

## □ 국영기업 민영화, 4G 상용화 등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 정부는 국영 통신기업의 과열경쟁 및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2016년 ①공공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 프로그램 강화, ②국영 통신기업의 민영화 가속화, ③4G 사업 라이선스 발급 등 3대 정책을 통해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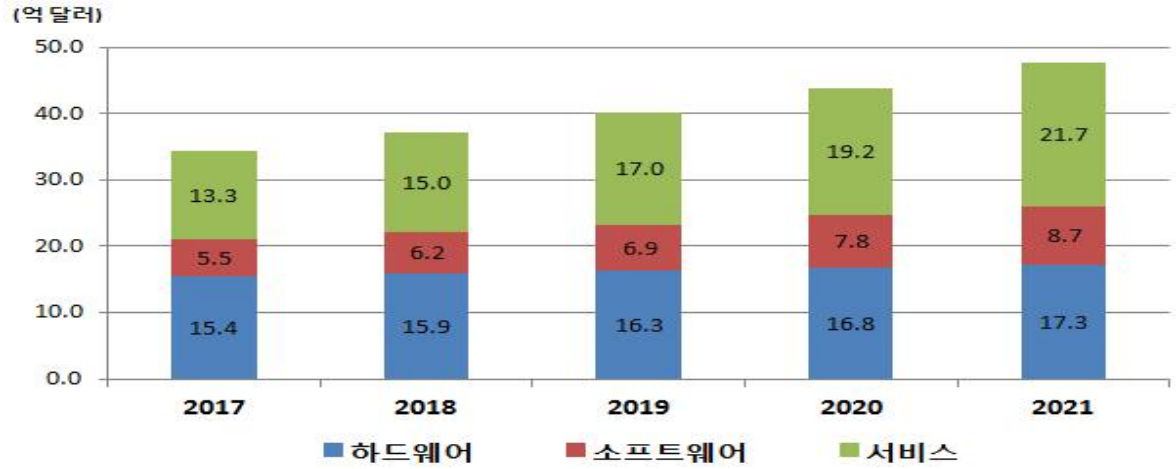
— '2020 통신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계획'에서 사업경비 예산(4.8억 달러)의 70%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배정함. 또한,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2위 기업 MobiFone에 대해 외국기업 앞 지분 매각 및 상장(IPO)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2016년 10월 Viettel 등 4개 이동통신사에 4G 라이센스를 발급해 통신사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4G 상용화, 2020년에는 3G 및 4G 보급률 95%를 목표로 하고 있음.

## □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 전망

○ ICT 산업은 2017년 이후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1년 시장 규모가 47.7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특히, 아웃소싱 등 서비스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해 2019년 이후 하드웨어 산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4 > 베트남 ICT 산업 부문별 시장 규모 전망




자료: BMI.

< 표 15 > 베트남 통신 인프라 산업에 대한 SWOT 분석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es) |
|---|---|
| ○ ASEAN, WTO, 양자협정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로의 통합<br>○ 무역 자유화 등을 통한 국내 IT 시장 급성장<br>○ 글로벌 IT 기업의 투자로 현지 하드웨어 산업 확장 | ○ 태국 등 주변국 대비 낮은 1인당 IT 지출<br>○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높은 수준<br>○ 스마트폰 대두로 인한 PC 판매 급감 |
| **기회(Opportunities)** | **위협(Threats)** |
| ○ 하이브리드 노트북 시장의 성장 가능성<br>○ 정부의 IT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현지 기업 성장 기대<br>○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성장 가능성 | ○ 스마트폰 보유 증가에 따른 PC 시장 침체 가능성<br>○ 중국 경제 경착륙, 트럼프 당선 등 외부 충격에 취약 |

자료: BMI를 토대로 저자 재작성.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2) 주요 추진사업

### □ 방송·통신망, ITS 구축 프로젝트 추진 전망

○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 보급을 목표로 디지털 방송 변환 프로젝트에 66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또한 3G/4G 상용화를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교통 인프라 구축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39개 고속도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도입할 계획임. 이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의 패키지 형태로 ITS 사업 발주가 확대될 전망임.

## (3) 기업 진출현황

### □ 외국기업 및 다자개발은행의 지원

○ 일본은 베트남 ICT 분야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ICT 분야 총 수원 금액의 약 70%를 차지함. JBIC, JICA는 지난 10년 간 TV센터 및 해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통신네트워크 개선 등 ICT 분야에서 1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함.

○ 세계은행은 베트남에 ICT 개발 프로젝트('05) 등 6건의 ICT 사업을 지원함. ADB는 2013년까지 약 50건을 지원하였으나, 대부분은 운송과 관련된 ICT 사업이며, 순수한 ICT 프로젝트 지원은 미미함.

### □ 우리기업의 진출 현황

○ 디지털 방송국 건립, 통신망 구축 등에 집중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기업은 방송 및 IT 장비 공급, ITS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알티캐스트, 윌비솔루션 등 국내 IT 중소업체들은 IPTV 멀티스크린 솔루션 및 시스템 공급, 중앙은행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수주하는 데 성공함.

— 삼성SDS와 SK C&C는 각각 호치민-쭝릉,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ITS 사업에 진출해 통행료 징수, 실시간 교통정보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표 16 > 우리기업의 주요 베트남 ICT 부문 참여

| 프로젝트 명 | 금액 (천 달러) | 참여기업 | 프로젝트 기간 |
|---|---|---|---|
| Viettel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 장비 공급 | 18,000 | 다산네트웍스 | 2014.7~2014.11 |
| IPTV 멀티스크린 솔루션 및 시스템 공급계약 | 43,800 | 알티캐스트, 가온미디어 | 2014~2018 |
| 호치민-쭝릉 고속도로 ITS 구축 | 35,000 | 삼성SDS, 동성중공업 | 2014~2016 |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ITS 구축 | 35,000 | SK C&C | 2015.7~2016.3 |
| 베트남 중앙은행 데이터 DW 및 BI 포털시스템 구축사업 | 6,000 | 윌비솔루션, 노아ATS | 2015.1~2016.12 |

자료: 각종 언론기사 등을 참고하여 재작성.

# Ⅳ.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 □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고려한 핵심 인프라 산업 진출 필요

○ '전력개발 마스터플랜', '고속도로 마스터플랜', 'IT산업 발전계획' 등 정부의 인프라 육성 정책을 고려해 전력, 교통, 통신 분야에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임.

—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재정지출에서 투자개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전년(21.0%) 대비 4.7%p 상승함.

○ (전력) 화력발전은 대기업, 풍력, 태양광 발전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편임. 타국 대비 낮은 전기요금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최근 친환경 부문의 투자를 장려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운송) 일본은 베트남 운송 인프라 시장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우리나라와 경합 중임. 우리기업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재원을 활용한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현지기업과의 제휴 등 현지화 전략을 통해 운송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통신) 방송국, 통신망 구축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신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ITS 사업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연계 발주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 건설업체와의 공동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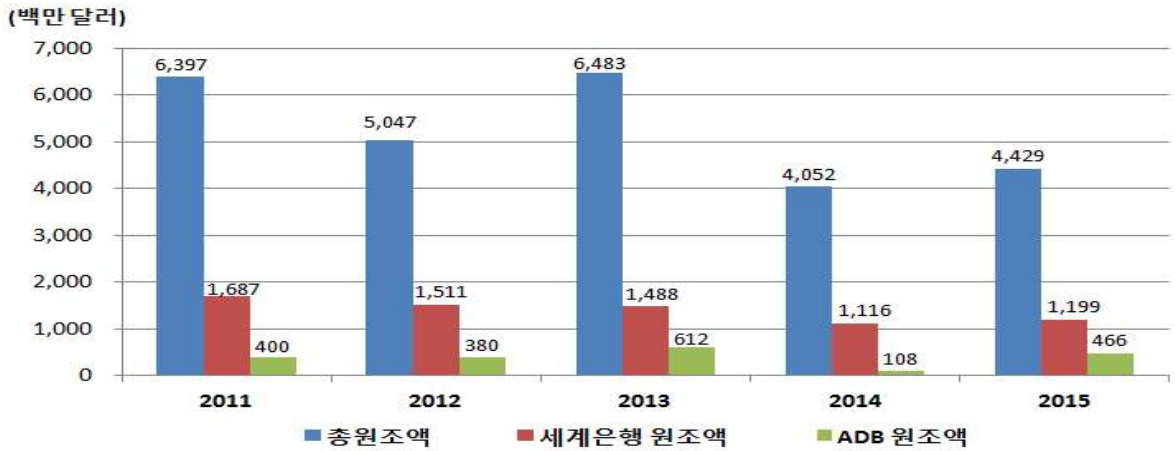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 □ ODA 융자조건 악화에 따라 민관협력방식 등을 통한 참여 필요

○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베트남의 ODA 수원규모는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은행은 2017년 7월부로 베트남을 IDA 대상국에서 우대조건이 낮은 IBRD 대상국으로 이전할 계획임. ADB도 2019년부터 아시아개발기금(ADF) 지원을 중단하고 일반재원인 OCR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임.

< 그림 15 > 대 베트남 ODA 추이




주: 경상가격 승인액 기준
자료: OECD.Stat.

○ 대 베트남 ODA 지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재정은 총 인프라 수요 예산의 30~40% 수준에 불과해 향후 공공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수의 인프라 개발 사업이 민관협력방식(PPP)으로 추진될 계획임.

* 상업금융 또는 시장차입의 시 금리부담이 높아져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증대

○ 따라서 PPP 프로젝트 모니터링, 현지 발주처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조사역 조재동(02-6255-5716)
jjd8948@koreaexim.go.kr

# 첨부 1 2011-2020 SEDS 및 2016-2020 SEDP 주요 목표

## 1.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2.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주요 목표

| 중점 분야 | 주요 지표 | 목표치 |
|---|---|---|
| 경제 | 연평균 경제성장률 | 6.5~7% |
| | 2020년 GDP 대비 공업, 서비스 비중 | 85% |
| | GDP 대비 사회 투자 비중 | 32~34% |
| | 2020년 1인당 GDP | 3,200~3500달러 |
|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 4% |
| | 2020년 도시화율 | 38~40% |
| 사회 | 농업 노동력 비율 | 총 노동자의 40% |
| | 직업훈련 이수 노동자 비율 | 총 노동자의 65~70% |
| | 도시지역 실업률 | 4% 미만 |
| | 의료보험 가입인구 비율 | 80% 이상 |
| | 빈곤가구 평균 감소율 | 연 1.0~1.5% 감소 |
| 환경 | 위생수 사용률 | 도시 : 95%, 농촌 : 90% |
| | 녹지율 | 42% |
| | 위해 폐기물 처리율 | 85% |
| | 의료 폐기물 처리율 | 95~100% |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청.

# < 참 고 문 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트남의 주요산업, 2011. 12
_____, 베트남의 ICT분야 개발협력 방안, 2014. 12.
_____, 한·베트남 수교 25주년 성과와 과제, 2017. 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6. 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6 - 베트남, 2017. 2.
한국무역협회, 2017년 베트남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2016. 11.
한국수출입은행, 베트남 통신산업의 최근 동향과 전망, 2009. 2.
_____, 베트남 전력산업의 최근 동향과 진출방안, 2012. 3.
_____, 베트남·인도네시아 전력산업 현황과 전망, 2014. 6.
_____, 발전플랜트 산업 전망 및 국내기업 경쟁력, 2015. 12.
_____,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한국전력공사,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5. 7.
해외건설협회, 거점국가별 해외진출 가이드북 - 베트남, 2016. 12.
KOTRA, 베트남의 도로·교통 인프라 시장 및 산업정책 동향, 2015. 6.
_____, 베트남의 통신시장 개방 가속화, 2015. 6.
_____, 베트남의 전력·에너지산업 정책 동향 및 진출방안, 2015. 9.
_____, 다시 기지개를 켜는 베트남 건설시장(2): 사회기반시설 건설동향, 2015. 11.
_____, ICT 해외진출 성공사례집, 2016. 2.
_____, 베트남 중부 투자환경, 2016. 3.
_____, 설비 필요한 베트남 통신산업(ICT), 한국 기업들은 로딩 중?, 2016. 7.
_____, 베트남에도 드디어 도시철도 시대 도래하나, 2016. 7.
_____, 베트남, 턱 끝까지 차오른 공공부채 위기, 2016. 9.
_____, 2017 베트남 진출전략, 2016. 11.
_____, 베트남 전력산업, 개발 방향 주시해 투자기회 찾아야, 2016. 11.
_____, 베트남 이동통신시장(1), (2), 2017. 1.

ADB, Vietnam Energy Sector Assessment, Strategy, and Road Map, 2015. 12.
Akamai's State of the Internet Q3 2016 Report
BMI, Vietnam Power, Infrastructure,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7 Q1,
Deloitte, 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EVN, Vietnam Electricity Annual Report 2012-2016
ITU,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6
US Department of State, Vietnam Investment Climate Statement 2015, 2015. 5.
VCCI, The Vietnam Provincial Competitiveness Index 2016



글로벌 도약의 성공파트너, 한국수출입은행 조재동 | 2017-05-26 11:00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_____,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매일경제(http://news.mk.co.kr)
엔지니어링데일리(http://www.engdaily.com)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http://www.export.gov)